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5·18 진상은 문재인 대통령 명령으로 밝혀야

5·18 30주년을 맞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8일(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여사와 5당 대표,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되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입장과 퇴장에 5·18 유가족과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 받는 혼란이 있었다. 황 대표는 입을 위한 행진곡도 손을 흔들며 함께 불렀으나 분향과 헌화도 유가족과 시민들의 저지로 할 수 없었고, 퇴장도 망원동 묘지로 통하는 후문으로 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광주사태가 5·18민주화운동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대법원 판결 등으로 정치적·법적인 평가가 끝났다.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 일부 국회의원과 극우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황 대표가 광주에 오기 전에 5·18 망언 의원들을 제명 등 마무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광주에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목이 베어서 잠시 기법사를 중

지해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과 진상은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아반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를 떠나지 않고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독재자의 후예(後裔)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5·18의 가치가 자유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2년 전 대통령의 광주 연설에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 국민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광주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광주에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5월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국가폭력은 군사기밀이나 국가보안이 아니다. 5·18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어젖히면 진실이 드러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최우선적인 적폐정신이다.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의 문서고를 열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광주와 국민에게 주는 역사적 선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국회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무슨 권위로 어떻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최고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사와 안보지원사령부에 5·18 진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5·18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나는 정 당대표의 위 주장에 진정으로 공감한다. 오랜만에 정확하게 정곡(正鵠)을 찌르는 시원한 주장을 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회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

수사권도 없다. 강제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보안사와 안보지원사 문서 창고에 있는 군사기밀 서류에 접근하기 어렵다. 오직 대통령만이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 받고 혐오 받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해야 할 국회는 등물국회로 개편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서로 상대방이 뒤집어 씌운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말 경쟁, 막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막말도 막말 나름이다. 차마 입을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과 혐오의 정치인들이 막말로 언론과 선거구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듯한 역겨운 꼴불견이 계속되고 있다. 남의 약점을 잘 잡아서 비판하고 막말을 잘 해야 주목 받고 똑똑한 정치인인양 으시대는 유행하고 잘못된 정치 풍토와 정치 수준을 언제까지고 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국민과 선거구민,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성실하고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성실한 국회의원보다도 정치 쇼와 막말에 능한 의원이 더 알려지고 똑똑한 의원으로 인식되고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생은 연극이요, 어차피 정치는 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 꾸미는 외사(外飾)와 정치 쇼로 얻은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끝이 불행하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막말하고 어거지 변명과 거짓 사과를 반복하는 저질 정치인과 정치 쇼로 재미 보는 역겨운 정치 풍토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社說

대졸실업자 또 사상최고라니...

지난달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는 답답할 따름이다.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올해 들어 4개월 내내 380만명을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졸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딱 2년 전인 2017년 4월에도 이와 같은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가장 높았다가 등록을 거듭한 뒤 올해 들어 또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 수 51만1000명 중 15~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범위를 30대가 지 넓혀 보면 총 35만5000명으로 비중이 더욱 커진다.

통계 당국은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있었던 지난달 실업자로 잡힌 '공시족' 청년층이 유독 많았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를 떠나 경기구조조적인 전체 국면에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이 취약한 건 사실로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 사이 출생한 세대)'의 자녀 세대에 '에코 세대(1979~1992년 사이 출생)', 그 안에서 특히 인구 규모가 비교적 많은 1990년대생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Table with 2 columns: 甲帳對楹 (Left) and 甲帳對楹 (Right). Content includes 갑옷, 장막, 대할, 기둥 and 갑, 장, 대, 영.

▷ 뜻: 아름다운 갑장(甲帳)이 기둥을 대하였으니, 동방삭(東方朔)이 갑장(甲帳)을 지어 임금이 잠시(暫時) 정지(停止)하는 곳임.

차량 안전삼각대는 생명의 삼각대

운전하는 운전자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꼭 제안하고 싶다. 누구나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차 고장이나 부득이하게 주·정차 시에는 안전삼각대를 꼭 설치했으면 한다. 안전삼각대는 나의 안전만이 아닌 타인의 안전까지 배려하는 운전 중의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기본자세다. 고속도로 차량 운행 중 가끔 갖길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거의 100km 이상으로 고속운행을 하기 때문에 갖길 주·정차 시에는 100m 이상의 거리에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이 안전표식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허다하다.

운전 중 갖길 주·정차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간 100m 이상의 지점과 야간 500m 이상의 지점에 적색 삼광신호나 불꽃신호 등 안전표식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 한다. 특별한 조치 없이 갖길 주·정

차 시에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방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다는 표식을 꼭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삼각대와 적색삼광신호 같은 안전 장구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장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인호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湖南新聞 (Hunan News)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